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1년 5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팀 이상준 팀장(02-2110-5424), 오성진 사무관(02-2110-4752)

녹색성장+동반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 "녹색 동반성장" 본격 시동

- 온실가스 다배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그린크레딧 협력 추진 ['20년까지 1조원 규모]

- 참여 대기업 투자금 7% 세액공제 신설 등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발표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5.24(화), 롯데호텔에서 현대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 등 중소기업 대표, 15개 업종별 협회장, ESCO 협회장, 에너지진단전문기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녹색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

○ **현대자동차, POSCO**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그린 크레딧' 협력 MOU**를 체결하고

* 그린 크레딧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기술을 투입하여 온실가스·에너지를 감축하고, 감축실적 중 일부를 크레딧으로 이전받는 사업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을 공동으로 견인하는 **'녹색 동반성장'**을 본격화함

○ 아울러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과 온실가스·에너지 **동반감축 사업의 발굴, 감축설비 투자자금**의 지원, 감축 이행을 위한 **전문 기술 지원** 등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함

○ 이와 같이 278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대기업이 감축량의 10%를 그린크레딧을 활용하여 달성시, '20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임('10.4~)

□ 금년은 대상기업에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여되는 첫 해**로서, 산업·발전부문 378개 관리업체는 생산성 저하 및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국가 총량의 58%, 41%를 차지

○ 그간 대부분 기업들은 자율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관리만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시설단위별 세부 실적**을 파악, 제3자 검증을 받고 **정부에 제출**해야 함(5월까지)

○ 특히, **6월**부터는 정부와 기업간 **목표 설정을 위한 협의가 개시**되고, 기업은 과거 배출실적과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고, 정부는 현장실사팀 조사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9월에** 기업별 **감축 목표를 부여**함

○ 기업은 부여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이행계획을 12월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감축활동을 **이행**해야 함

□ 이와 같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시한이 임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은 부족**한 실정임

○ **중소기업**은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관리업체 중 26%를** 차지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큰 비중**을 차지하나,

- 중소기업의 생산비용 중 **에너지비용**의 비중은 **대기업 대비 1.7배***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녹색경영에 취약한 구조임

* 생산액 대비 에너지 비용(연료 및 전력) 비중(평균) : **대기업(6.8%), 중소기업(11.8%)**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금·기술·정보** 등 **감축 infra가 부족**

- 기업 신용도·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소규모 절약시설 투자에 그치는 상황**

-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수용 및 관련 정보 수집·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문 인력이 부족**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10.3, 중기중앙회)>
◆ 애로사항 : 시설투자 비용부담(50.4%), 규제강화 우려(20.9%), 정보 부족(14.0%)
◆ 바람직한 정책방향 : R&D 및 설비투자 지원이 필요(34.1%)

○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녹색 무역장벽**이 높아질 전망인 바, 중소기업들은 향후 **수출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음

- 노키아 등 해외 **선진기업들은** 국내기업과 계약 체결조건으로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여부를 평가**

○ 자금·기술력을 갖춘 대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큰 중소기업이 자금·기술·감축실적을 공유하는 **동반감축 메커니즘 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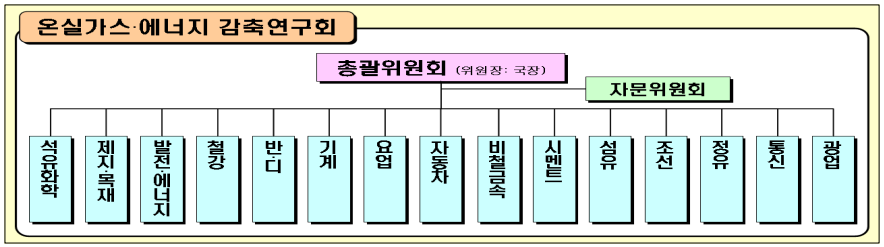
□ 이에 지식경제부는, 산업계의 협력실천의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녹색 동반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① 첫째는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자금·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출연한 자금**에 대한 **7%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 중이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대기업의 감축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확산**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철강·석유화학 등 15개 업종별로 운영



② 둘째는 **중소기업**의 '감축사업 발굴' - '설비투자 이행' - '감축실적 인증'을 지원하는 **'One-Stop 감축 코칭'**을 본격화

단계	① 감축 사업 발굴 (기술·정보 제공)	② 설비투자 이행 (자금 지원)	③ 감축실적 인증 (인센티브 제공)
세부 사항	·그린 크레딧 멘토 ·에너지진단 ·에너지서포터 ·감축지원센터	·그린 크레딧 Matching ·ESCO 등 정책융자 ('11년 4,270억원)	·KCER 등록요건 완화 ·중소기업 감축실적 우선 구매 추진

○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그린 크레딧 멘토'***를 운영, 중소기업 대상 감축 item 발굴 등 **그린 크레딧 대상 사업 선정을 지원**하고,

* 에너지진단기관,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KCER) 검증기관, ESCO 등 전문인력

- '11년 진단대상인 574개 중소기업에 에너지 **진단비용 38억원** 지원, 전국 **12개 中企 감축지원센터**를 통해 연 2회 에너지서포터 파견 및 **온실가스 감축 Info-Desk 운영** 등 기술·정보 제공을 강화

○ 대·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 Matching**, ESCO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4,270억원**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등 투자 지원을 강화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CER) 등록요건 완화* 및 중소기업 감축실적 우선 정부구매 추진 등 **중소기업 감축실적 인증체제를 강화**함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CER)의 최소 등록요건을 완화($500tCO_2 \rightarrow 100tCO_2$), 다수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일괄 등록 허용 등

③ 또한, 대표적인 **녹색 에너지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

○ '15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될 ESCO 시장의 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ESCO지정제도'** 시행, 자금난 해소를 위한 **「ESCO 공제조합」** 설립 등

○ 조명간판 및 전통시장 LED 보급사업('11년 200억원) 추진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LED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등을 강화,

○ 중소 에너지 진단기관의 판로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건물 에너지 진단 의무화 대상 확대**(기존: 신축건물→'13년: 모든 건축물) 및 **진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지경부 **최중경 장관**은 향후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및 녹색 무역장벽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을 강조하고,

○ 선도적으로 **그린 크레딧 협력 MOU**를 체결한 5개 대기업의 강력한 **녹색 동반성장 실천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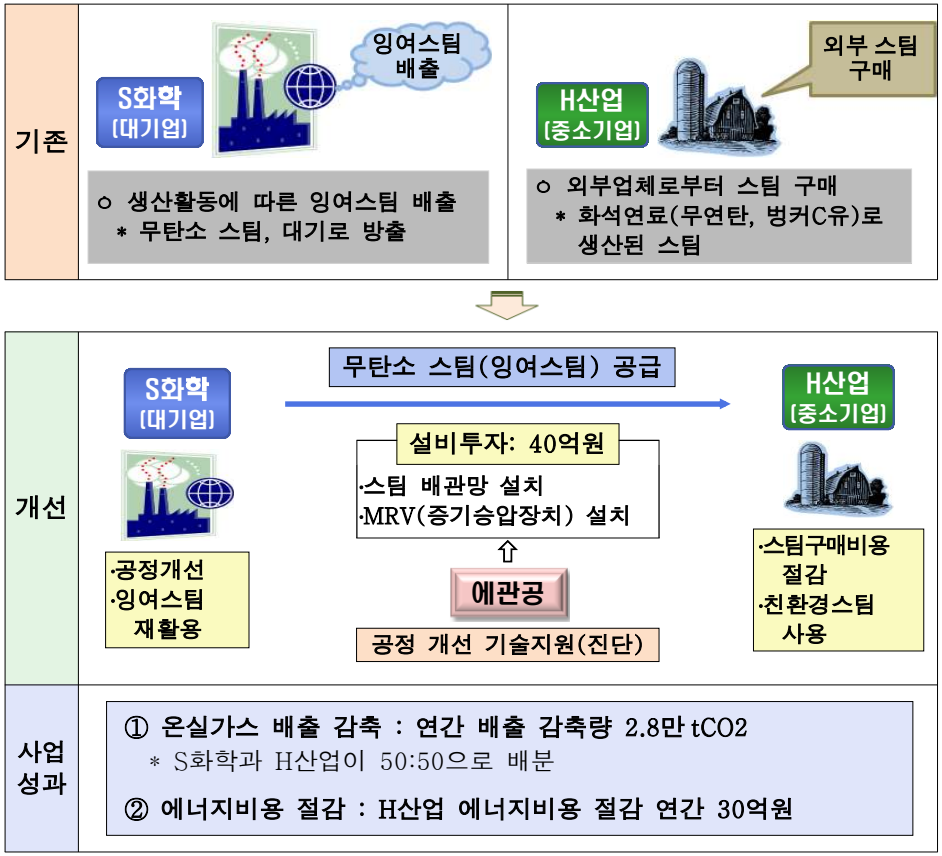
○ 이러한 기업의 협력의지가 지속적인 상승작용 및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

별첨 1 그린 크레딧 유사 사례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CER) 사례

○ S화학(대기업)이 H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탄소 스팀 공급체계**를 구축**(40억원 투자)**하여,

- S화학(대기업)은 **잉여스팀을 재활용**하고, H산업(중소기업)은 기존 대비 **10%이상 절감된 비용**으로 스팀을 공급받는 **Collabonomics** 구현
- 협력사업의 결과, **연간 평균 2.8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였으며, **H산업**은 **연간 에너지비용 30억원 절감**('08~)



별첨 2 그린 크레딧 협력 MOU 체결 기업 현황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명	주요 생산품
현대자동차(주)	(주)삼기오토모티브	자동차부품
	(주)세정	자동차 머플러
	(주)서진캠	CAM, 샤프트
(주)포스코	부공산업(주)	원심주조품
	(주)제철세라믹	규산질비료
(주)하이닉스반도체	(주)유피케미칼	반도체 공정용 전구체
	한국오츠카전자(주)	과불화탄소 가스분석장비
	크린시스템스코리아(주)	반도체장비
삼성전기(주)	대주전자재료(주)	도전성 전극 페이스트
	(주)엠케이켐앤텍	인쇄회로기판 표면처리 약품
	성호전자(주)	Film 축전기
호남석유화학(주)	(주)에스피지케미칼	초고순도 수소가스
	아이씨케미칼	계면활성제
	창신화학(주)	액체탄산가스